중국 "평화통일" VS 대만 "수용불가" 대격돌 예고

연초부터 양안(중국과 대만) 평화통일을 압박하는 중국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대만이 팽팽히 맞서며 올해 양안 간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미국이 양안 사이에 개입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긴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3일 '아시아경제' 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1면 한 페이지를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로 반드시 양안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시진핑 중국 주석(왼쪽)의 연설 내용으로 채우며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대만 동포에 고하는 글 발표 40주년 기념회' 연설을 통해 중국과 대만이 '92공식' (1992년 '하나의 중국' 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양안이 평화통일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이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양안 평화통일을 강조함에 따라 중국과 대만의 충돌이 한층 거셀 것으로 보인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오른쪽)은 시 주석의 대만 관련 연설 직후 "92공식을 수용하지 않는다." 고 공식 반발했다. 차이 총통은 지난 1일 취임 후 첫 신년담화를 통해서도 "중국이 양안 관계에서 '중화민국 대만' 의 존재 사실을 직시하고 2,300만 대만인의 자유 민주 수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고 강조한 바 있다.

평화통일을 압박하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는 대만의 입장 차이가 팽팽한 가운데 미국이 지난해 처럼 양안 사이에 끼어들 경우 미중 간 충돌 역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 분위기가 고조될때마다 '대만카드' 를 통해 중국을 압박해왔다.

사우디, 카슈끄지 사건 첫 재판 검찰, 5명에 사형 구형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이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5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카슈끄지 살해사건에 관한 첫 재판이 열렸다. 피의자 11명은 변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

검찰은 피의자 가운데 5명에게 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터키에 두 차례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앞서 카슈끄지는 작년 10월 2일 결혼 관련 서류를 받으려고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에 들어갔다가 살해됐다. 카슈끄지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등 사우디 왕실에 비판적인 칼럼을 워싱턴포스트에 써왔다. 국제사회에서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카슈끄지 살해의 배후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사우디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사우디 검찰은 카슈끄지의 귀국을 설득하려고 터키에 파견된 현장 팀장의 판단으로 카슈끄지가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살해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터키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터키 당국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터키 현지 언론은 지난 달 31일 카슈끄지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옮기는 동영상이 공개했다.

장소가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 자택이어서 고의 은폐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카슈끄지가 살해된 이후 시신의 행방은 3개월째 오리무중이다.

한국 출신 프랑스 하원의원, 신당 창당

야당 여성의원을 상대로 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프랑스 집권당에서 탈당한 한국 입양아 출신 조아킴 손포르제(한국명손재덕·36·사진) 하원의원이 신당을 창당한다.

4일 '동아일보' 에 따르면 조아킴 손포르제(35) 프랑스 하원의원은 2일 주간지 렉스프레스 등과 인터뷰에서 'JSFee' 라는 정당을 창당했다면서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에 후보자들을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포르제 의원은 "당명 'JSFee' 는 '나는 프랑스인이자 유럽인이다' (Je suis francais et europeen) 라는 뜻으로, 이 문장의 머리글자를 딴 것" 이라며 "5월 유럽의회 선거에 후보자들을 내겠다." 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사회의 엘리트 계층의 모범성을 옹호하는 정당이 될 것" 이라면서 "정부지출과 국가의 역할을 줄이는 한편, 오랫동안 프랑스의 자랑이었던 유머와 엉뚱함이라는 프랑스적 문화를 옹호하겠다." 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 (LREM·전진하는 공화국) 소속이었던 그는 트위터에서 다른 당의 여성 상원의원에 대해 성차별적인 내용의 글을 잇달아 올려 당 징계위에 회부되자 탈당했다.

자신이 몸담았던 LREM에 대해 그는 "늙은 정당" 이라면서 "민간에서 의원들을 뽑아놓고 민간의 일을 설명할 기회도 갖지 못하게 하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비난했다.

손포르제는 1983년 7월 서울 마포의 한 골목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돼 이듬해 프랑스로 입양됐으며, 프랑스의 최고 명문 그랑제콜(소수정예 특수대학)인 파리고등사범학교(ENS)에서 수학했다. 이후 스위스 로잔에서 의사로 일하던 그는 작년 6월 프랑스 총선에서 집권당 소속으로 출마해 스위스·리히텐슈타인 해외 지역구에서 34세의 나이로 당선됐다.

장홍범 교수의 **미국 세무사 (EA) 시험 준비반**

2019년 개정세법에 맞추어 강의, 2달간 수업

무료 공개 설명회 (장소는 아래 강의 장소와 동일)

LA: 저녁반 1월 7일 월 저녁7시, 주말반 1월 13일 일 오후 2시

OC: 저녁반 1월 8일 화 저녁7시, 주말반 1월 12일 토 오후 1시반

강사약력:
31년째 세무사교육
미국 CPA겸 EA
세무회계법인 송현 및
C&C GROUP 공동대표
미주공인세무사협회회장

LA 지역 강의

장소: CAP Consulting inst.
501 Shatto place. #403, Los Angeles
주중저녁반: 월,수 저녁 7시부터 10시
(1월9일 첫수업)
주말반: 일요일 2시부터 7시반
(1월 20일 첫수업)

OC 지역 강의

장소: 시민권자협회 강의실(#17) 미미안경원 2층
963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주중저녁반: 화, 목 저녁 7시부터 10시
(1월 10일 첫수업)
주말반: 토요일 1시반부터 7시
(1월 19일 첫수업)

문의: 카톡아이디 eatax, 전화714-393-2238, www.eatax. www.eatax.com songhyuntax.com